

“다음세대 살리기, CBS가 앞장서겠습니다”

2016년 첫 번째 프로젝트, ‘신나는 교회학교’, ‘어린이 암송성경’

미래세대 실종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는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한국사회의 인구감소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교회안의 미래세대 실종이다.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 성도 수가 300~400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를 살릴 마지막 보루가 ‘다음세대’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교회가 지난 20여년 전 뿌린 전도의 열매로 30~50대 장년층의 성장을 이룬 것처럼,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서는 ‘주일학교’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선행돼야 하며 다음세대에 대한 투자가 곧 한국교회의 성장과 정체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잡아 주는 배려 부족

현주소를 보자. 교회수가 가장 많은 합동측의 경우 68%가 교회학교가 없다. 통합측 8500개 교회중 50%가량이 교회학교가 없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교회에 교회학교가 없어서 이웃교회와 연합해 겨우 교회학교를 세우고 자녀를 거기에 보낸다고 한다.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당장의 손익보다 꾸준한 개발과 투자에 신경을 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수평이동으로 인한 성장에 기대채, 십일조를 내는 어른들만 주인노릇을 한 셈이다. 돈만 쓰는 교회학교 부서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한국교회의 미래 방향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골든타임 10년 앞에 비장한 각오로 나서자.

결국 한국교회는 뒤에 오는 사람 생각해서 문을 잡아주는 배려가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 무너져가는 교회학교를 다시 수축하는데 교회의 상당한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광속으로 달리는 세상 문화속으로 아이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개교회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엔 중과부적이다. 따라서 이단과의 전쟁으로 한국교회 울타리 역할을 감당했던 CBS가 이제 무너져가는 독을 보수하는 심정으로 한국교회회를 섬기고자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 그것은 ‘교회학교 살리기’이다.

TV프로그램 ‘신나는 교회학교’

CBS는 오는 5월 교회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 성공사례를 취재해 방송하는 ‘신나는 교회학교’를 정규 편성할 계획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씨앗심기를 부지런히 감당한 교회들의 노하우를 전국의 교회가 공유함으로써 한국교회안에 교회학교 살리기의 불을 당기자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교회속에 어린이 교회를 세워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공동체로 성공한 사례라든지 주일학교 학생이 모든 순서에 참여하는 꽃주일 예배, 1달에 한번씩 지난주 설교 말씀에 대한 쪽지시험을 치르는 심화예배, 다양한 비유와 게임을 설교에 도입해 집중도를 높이는 재미있는 예배, 매일 아침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고 등교하는 출석 예배, 담당교사 집에서 토요일 1박하거나 친구를 선생님집에 초대하는 스킨쉽 교제...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찾아 방송한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 어린이 암송성경 봉헌

2017년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종교개혁의 3대 모토중 하나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

최대한 살려 한편의 랩송으로 또는 리듬있는 언어로 또 다른 율동으로 암송하고 표현해야 한다.

성경 암송 영상은 전국교회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편집 배포할 계획이다. 또 기독교역사 박물관 등에 비치해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큰 도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은 평생을 인도하는 지혜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될 것이다.

벤엘교회 박태남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CBS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학교 살리기에 나선다고 하니 매우 기대가 된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CBS 교회학교 콘텐츠뱅크

우수한 교회학교용 콘텐츠를 모아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전국 교회학교 누구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뱅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CBS는 이를 위해 중고등부 학생 대상 웹툰 공모대회인 70초 영화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5분영상’ 100개 프로젝트, 목소리 성경 App등 다양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교회의 우수한 교회학교 운영 시스템을 기증받아 배포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CBS는 ‘신나는 교회학교’운영을 크게 학생과 교회(교사, 부모)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CBS 시네마 두 번째 프로젝트,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 <레터스 투 갓>

소아암에 걸린 8세 소년의 감동 실화! 전국 롯데시네마 절찬 상영

지난해 영화 <프리덤>을 통해 자유에 대한 감동을 선사했던 CBS 시네마가 두 번째 영화 <레터스 투 갓>(감독: 데이비드 닉슨, 주연: 테너 맥과이어·제프리 존슨, 수입: CBS, 배급: (주)모멘텀 엔터테인먼트)을 지난 2월 25일 개봉했다.

2015년에 개봉된 기독교 영화 중 최고 성적을 거둔 <프리덤>의 인기에 이어 CBS 시네마가 다시 한번 영화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년의 간절한 기도가 세상을 울린다

영화 <레터스 투 갓>은 소아암에 걸린 소년의 간절한 기도를 담은 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이 변화되는 가족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그린 감동 실화이다. 영화 속 주인공인 타일러는 소아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소년이다. 그리고 이런 타일러가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 주변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 줄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각자의 사연을 가진 가족, 친구, 우체부, 이웃 할아버지 등의 캐릭터들도 다양한 매력으로 극을 이끌어간다. 여기에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라는 독특한 장치와 그에 대한 답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 어린 소년의 순수한 마음은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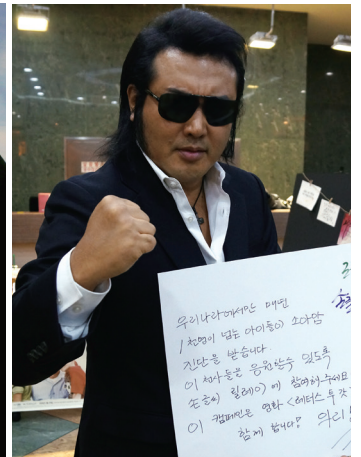
최근에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족 간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레터스 투 갓>은 이러한 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세계 소아암의 날 기념 손글씨 릴레이

특히 CBS 시네마는 이번 작품을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레터스 투 갓> 홍보대사인 이운재 코치(올림픽 축구대표팀)와 김보성(영화배우)이 등 영화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소아암 아이들에게 사인한 공을 선물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세계 소아암의 날(2월 15일)을 기념하는 '손글씨 릴레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게시물 1개당 100원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되는 형식이다.

현재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인기에 힘입어 시작된 '손글씨 릴레이 시즌2'에는 CBS 표준, 음악FM의 진행자인 가수 유영석과 탤런트

김현주, 강석우 씨가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영화 전단지 활용한 손편지 이벤트를 비롯해 포스터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CBS시네마 페이스북(www.facebook.com/cbscinem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5일과 18일에 진행된 시사회에서는 <레터스 투 갓>의 홍보대사인 올림픽 축구대표팀 이운재 코치와 배우 김보성이 각각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운재 코치는 시

사회에 초대된 소아암 아이들에게 직접 사인한 축구공을 선물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김보성은 특유의 "의리!" 멘트를 외치며 영화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손글씨 릴레이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감동적인 스토리와 다양한 이벤트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레터스 투 갓>은 전국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교회·공동체 상영문의 : 02-2650-7942(친구사이)

CBS 콘텐츠, 두각을 나타내다

CBS 음악 FM 청취율 1위 프로그램最多

한국리서치 MRS(Metro Radio Study) 조사 결과, 동일 시간대 청취점유율 1위인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라디오 채널은 CBS 음악FM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지혜의 영화음악>, <오미희의 행복한 동행>,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이 바로 그 주인공들. 청취율 1위 프로그램 10개 중 CBS 프로그램은 무려 4개로, MBC 표준FM은 3개, SBS 파워FM은 2개에 그쳤다. 신변잡기식 잡담대신 청취자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있는 진행이 애청자들을 꾸준히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결과였다.

이와 함께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김필원의 12시에 만나다>, <한동준의 FM POPS>, <배미향의 저녁스



CBS음악FM 진행자들 정민아, 신지혜, 오미희, 허윤희 DJ /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위자 / <몽고식품 회장의 직원 상습폭행> 기사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경남CBS 이상현기자 / 제14회 송건호 언론상 수상한 변상욱 대기자 / YS 영결식에서 추위에 떠는 어린이 합창단원들(사진은 상단 좌측부터)

케치> 등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청취율 1,2위를 다투고 있어 CBS음악FM과 표준FM의 청취율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두각을 나타내기는 청취율 뿐만 아니라 각종 시상식에 서도 마찬가지. 지난 해 제 4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장, <세월호 1년, 안산의 눈

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동료 PD들로부터 작품성을 인정받는 상이어서 PD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기도 한 제 27회 한국PD대상 시상

식에서도 역시 '라디오의 절대 강자'CBS의 '상바람'은 거셌다. <라디오, 날개를 달다>, <이슬에 잠들다>, 라디오 진행 자상까지 거머쥐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던 <몽고식품 회장의 직원 상습폭행> 기사가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고, 3월 2일에는 <제헌헌법의 꿈>이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작품성과 취재력으로 수상하는 <이달의 PD상>과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클럽 보도상> 등 수상자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다. 노컷뉴스팀 윤성호 카메라 기사는 치열한 뉴스현장에서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순발력을 발휘해, 이 달의 보도사진상을 두 차례나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연말, 변상욱 대 기자는 제14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리 사회에 '신빠사' 열풍을 일으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한국기독교언론대상을 받았다.

CBS 꽃다방, 기대를 뛰어넘는 인기 질주!

CBS의 '예능'이란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

CBS가 오랜기간 공들여 준비한 본격 예능프로그램 <꽃다방>(이하 꽃다방)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매주 1회 방송이지만 그 열기는 CBS TV 전체 시청률을 끌어올릴 정도다. “CBS에서 하는 것이 맞냐?”, “너무 재미있다”, “언제 재방송을 하나?”, “더 자주 보게 해달라” 등 방송 중 걸려오는 많은 전화도 인기를 대변하고 있다.

<꽃다방>은 김현욱, 이성미, 이혁재 등 3명의 MC와 9명의 연예인 및 전문가 패널이 '다방(카페)'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상생활 속 고민을 서로 나누며 재치있고 활발한 '수다'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고민해결 간증 토크쇼'이다. 지난 가을에 선보인 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최초의 '기독교 예능'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CBS 선교TV본부장 신동원 상무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재미있다’고 할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웃음꽃이 만발한 가운데 감동의 눈물이 가슴을 적시는 프로그램이 되기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꽃다방의 인기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 기존 기독교 채널에서 보기 힘들었던 인기 연예인들이, 그것도 다수가 함께 출연하기 때문이다.

다수 출연자들이 토크배틀을 벌이는 일명 '떼토크' 프로그램은 제작비가 많이 들기에



보기만 해도 속이 뽕 뚫리고 활기차게지는,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따뜻한 차 한잔 같은 프로그램 <꽃다방> 녹화 장면.
<꽃다방>의 세 MC 김현욱, 이성미, 이혁재(사진 오른쪽)

공중파나 종편 채널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CBS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독교 채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전KBS 아나운서로 각광받고 있는 전문 MC 김현욱, 개그계의 대모 이성미, 독보적인 입담으로 KBS 연예대상을 거머쥐었던 이혁재가 MC로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고정 패널은 60,70년대 최고 여배우이자 서울극장 대표인 고은아, 영원한 뽕식이 이용식, 다산의 상징 김지선, 광고와 방송에서 맹활약중인 오경수 등이며, 이 외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여가수 정훈희, 텔런트 성병숙, 개그우먼 문영미, 김효진, 개그맨 표인봉, 코미디언 한무, 모델 박돌선, 텔런트 김세아 등이 번갈아 출연하며 프로그램을 빛내주었다.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방

송에서 속시원히 신앙이야기를 할 수 없어 안타까워했던 연예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출연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앞으로 풍성한 열매가 기대된다.

두 번째 비결은 기독교적인 예능포맷의 성공적인 개발에 있다. <꽃다방>은 '자극적이고 자학적인 예능'에 지친 일반 시청자나 기독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착한 예능', 웃음과 눈물이 조화롭게 담겨 있는 '감동예능'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연자들은 재치있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에게 쉼없이 재미를 주지만, 어느순간 진심어린 간증을 통해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성미는 “나는 새엄마와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어떤 엄마가 되어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아이들에게 고백한 후 아이들과의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밝혀 눈물을 짓게 했고, 성병숙씨의 딸 서송희씨가 녹화장을 깜짝 방문해 엄마에게 “엄마가 엄마

하면서 신양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혁재는 “방송생활의 제2막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다.”며 CBS의 예능은 남달라야 하기에 재미는 기본이고 “‘예능’, 즉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고 기업을 토했다.

한편, 강인석PD 등 제작진은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우려섞인 목소리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청자와 한국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 넘치는 재미만큼 감동도 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선물이 뭐길래?’, ‘착한 사람은 바

보다’, ‘엄마는 항상 아프다’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제로 방송하고 있는 <꽃다방>은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고민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예정이다.

본방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재방송은 월, 목 밤 10시 10분, 토 오전 10시, 주일 오후 3시에 방송된다.

<꽃다방>은 스카이라이프, 지역 케이블, 통신 3사 IP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특별히 CBS TV 앱,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다음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로 제공되고 있어 시청자들이 더 쉽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보기만 해도 속이 뽕 뚫리고 활기차게지는,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많은 질문과 고민에 지친 당신에게 따뜻한 차 한잔 같은 프로그램 <꽃다방>!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초 체력 튼튼히 하는 CBS 세미나

이음 목사 '성경 맥잡기', 임승채 목사 '되는 전도'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위기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 CBS가 한국교회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두 가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기본을 다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제대로 훈련시키는 세미나이다.

'성경의 맥(脈)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이음 목사(대전 은포침례교회)의 '성경 맥잡기'는 성경 각 장 제목을 그림과 연상법을



통해 암기하게 돕는다. 13년 동안 2만명이 넘는 수강생을 배출하고,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 연구와 중요구절 주석을 수록한 '맥성경'과 '맥성경 플러스'를 보급하고 있다. '성경 맥잡기'의 특징은 각 장의 핵심 되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고,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관통하게 도우며, 난해하거나 중요 내용들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정리된다는 점이다.

'성경 맥잡기'는 이음 목사가 가난한 목회자 자녀로 고아원에 위탁되었던 경험과 오랜 목회기간 가운데 얻은 은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성

도들은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 수 있다.

마지막 시대,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는 '되는 전도'가 대안이다

임승채 목사(되는 전도 훈련원)의 '되는 전도'는 한국교회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전도 방법으로는 나눠주는 전도, 방문 전도, 관계 전도 등이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성과가 낮거나 수평이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적인 전도훈련과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되는 전도'의 전도 방법은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을 분별하는 'Talk(이야기)', 태신자와 친해지는 '관계전전', 교회 등록과 정착을 위한 '명분주기'등이 있다. '되는 전도'는 단순히 이론적 방법이 아닌 전도현장에 적용하여 검증된 노하우를 제시한다.

'되는 전도'로 훈련받은 군산 양지교회의 경우 성도 한 명이 5개월 간 50명을 전도하였고, 인천 월미도교회도 성도 3명이 3개월간 106명을 전도하였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미나이다.

CBS가 준비한 두 가지 세미나는 참가자의 개인적 신앙성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참가자는 현대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일하는 CBS와 함께 '방송선교사'로 동참하여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성경 맥잡기'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되는 전도' 세미나는 매주 수요일 오후 4:40에 CBS TV를 통해 방송된다.

세미나 문의 02)2650-7931(CBS 문화선교부)

사진 임승채 목사(왼쪽), 이음 목사(오른쪽)

CBS 후원 스토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어'

사례 1 노숙인 그리고 102만 1천원

2015년 초, CBS에 한 목사님이 보낸 등기 우편이 접수됐다. 수원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일곱 명의 노숙인과 함께 보낸 감사 편지와 후원금 10만 6천원이 들어 있었다.

실직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여러 가지 구구 절절한 사연을 들춰보니 사회를 등지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 삶의 희망을 되찾고 CBS TV에서 큰 힘을 얻었다는 고백과 자활해서 개미처럼 모든 돈 10만 6천원이 들어 있었다.

사실 이분들에게 있어 1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CBS를 통해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감동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간절함이 천국을 심는 기쁨으로 발전했다. 그렇게 시작한 후원은 지금도 두어 달에 한 번씩 계속 이어져 모두 102만 1천원이 되었다.

옷이나 책을 산처럼 처분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몇 톨 안 될 때 우리는 돈의 크기와 가치를 문득 깨닫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CBS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방



송 전파를 통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구나' 하는 감동과 함께 이 소중한 방송선교의 사명을 더욱 잘 수행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사례 2 내 집? 하나님의 집!!

손OO, 권OO 집사 부부는 지난 8월 1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가평읍 금대리 임야 공시 시가 2억 2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CBS에 헌납했다. 기증한 땅은 근처에 고급별장들이 많이 들어서서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가락동부교회(고신) 집사인 부부는 노후대책으로 전망 좋은 땅을 구입하여 은퇴 후 집을 지어 살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들이 다 부질없는 것으로 느껴져 꿈을 접고 부지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사례 3 70여년 만의 첫 서울 나들이

2015 CBS후원 특별생방송이 한창이던 10월 29일 오전, 설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뚫고 키 작은 할머니 한 분이 선교국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른 아침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서울행 차를 타셨단다. 수원서 태어나 서울땅이라고는 처음 밟아보신다는 할머니, 모든게 낯설어 보이시는지 매사에 조심스럽다. 극동방송은 많이 들어봤어도 기독교



교방송은 처음인데다, 두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겠고, CBS가 방송사역을 위해 후원해 달라는데 제대로 하는 곳인지 어떤지 뒤숭숭해서 무작정 와보고 싶으셨단다.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강혜정 같은 해맑은 느낌의 송OO 할머니.

~처음 교회 나간 이야기.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 감사한줄 모르고 지잘난 맛에 살았다는 이야기. ~예수 믿고 나니 천지가 달라 보이더라. ~내가 정말 죄인으로 살았다.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며 손수건을 찾으시던 할머니.

3층 JOY4U 스튜디오의 생방송과 TV 성서학당 녹화 현장 등을 두루 둘러보신 후 별 말씀없이 계좌번호만 받고 총총히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런데 다음날 할머니가 다시 오셨다.

예수를 안 지 여섯달 밖에 안되는 할머니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다며 허리춤에 전대를 차듯 어깨에 끈으로 꽂꽂 묶고 온 가방을 내려놓으신다. 지퍼가 열리고 신문지로 둘둘 말린 뭉치를 할머니는 쑥 내미셨다. 5만원권 4뭉치, 2천만원...

수줍어하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제 방송국 둘러보고 맘이 들떠서 갔고 천천히 송금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을 주셔서 직접 가지고 왔어"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은밀히 일하시며 CBS의 방송사역을 응원하고 계신다.

CBS선교후원안내

선교후원회 : 02. 2650. 7004

국민은행 : 884201-04-058501 (재)CBS

선교후원ARS : 060. 808. 0000

우리은행 : 1005-001-270120 (재)CBS

‘안성진의 CCM Power’의 특별함

CBS의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 ‘24시간 크리스천 음악채널 JOY4U’ 개국 녀 달

“무조건 반드시 기대하라”

안녕하세요.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해외 ‘CCM’과 ‘경배와 찬양’들로 꾸며지는 CCM Power를 진행하는 안성진입니다.

“무조건 반드시 기대하라”는 2016년 CCM Power의 표어인데요. 우리 파워 애청자들은 방송 내내 적어도 두 번씩은 이 표어를 직접 게시판을 통해 쓰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올 한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CCM Power’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오랫동안 라디오를 진행했던 CBS에서 다시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기대, 그리고 국내 곡들이 아닌 해외 CCM만을 소개해야 하는 부담과 긴장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크 앞에서 청취자들을 만나고 함께 찬양으로 소통하게 된 것은 오히려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JOY4U의 CCM Power진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점은 매일 밤 2시간 동안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 초창기 청취자들께서도 해외 CCM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팝송 찬양이라고 하면서 원곡이 주는 찬양의 매력에 푹 빠지신 듯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방송이 어느덧 200일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저는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CCM Power의 ‘특별함’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작진들의 특별한 애칭? 별칭?

CCM Power의 제작진은 ‘완소PD’, ‘음메작가’, ‘진디’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취자들께서 붙여주신 애칭들입니다.

저는 ‘진디’라고 불러주시는데 안성진 디제이의 줄임말이고요. ‘완소 PD’라고 불리는 박상완PD는 목소리만 듣고(?) 애청자들이 박상완PD를 상상하며 직접 지어주셨죠. 완전



CCM 가수 안성진씨는 JOY4U의 CCM Power진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점이 매일 밤 2시간 동안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사진은 JOY4U 안성진의 CCM파워를 진행하는 안성진(왼쪽), CCM파워 공개방송 감사 나눔(오른쪽)

소중한 피디님이시라고... 이윤창 작가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던 때에 아이들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해 소개를 맡아 달아 달아 썼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음메작가’로 불러주시더라고요. 하나같이 청취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호칭이지요.

방송 100일 특집 공개 방송!

100번째 방송을 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방송 중에 애청자 20명을 선정하여 100일 맞이 아주 특별한 공개방송을 JOY4U스튜디오에서 함께 했습니다.

처음 공개방송을 기획했을 때, 늦은 시간이라 모두 참석하실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기도 했었는데... 전원 참석하여 주신 애청자들과 그 분들이 준비해주신 축하케이크에 100일 기념떡까지... 감동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특별한 게스트까지 모시고 그 넓은(?) JOY4U스튜디오에 빼곡히 앉아 부족한 산소를 함께 나눠 마시며, JOY4U방송개국 100일을 축하하고 같이 찬양하며 감사를 나누며 스튜디오 안에서 2시간을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날 이후 CCM Power 가족들의 의리(?), 사랑이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늘 대화장에서 만나던 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가족의 힘!! 게시판 댓글 2600개 돌파!

CCM Power 애청자들께서는 파워를 유난히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녁 8시가 되면 삼삼오오 게시판에 모여서, 찬양을 신청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돈독한 유대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모니터로 보고 있으면 방송 게시판이 아닌 마치 한 모임의 단체 대화창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호칭도 언니, 동생, 집사님, 장로님까지 마치 한 교회의 친밀한 교우들처럼. JOY4U라는 울타리 속에 CCM Power에서 만나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동반자들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방송 중 생긴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말씀 드렸듯이 CCM Power는 대화창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편인데, 하루는 CBS 한용길 사장님께서 대화창에 깜짝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자기 소개를 하시고 청취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신청곡까지 남기셔서 모든 청취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직접 참여하신 모습이 엄청 좋으셨나봐요. “사장님 짱”, “사장님 최고”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대화창의 글이 2,600개가 넘어가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CCM Power가 단순한 음악 방송이 아닌 소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음에 너무 감사

했습니다. 사실 타인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 낯선 누군가에게 나의 일상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파워 가족들이 CCM Power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모습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청취자로 시작해 애청자로, 그리고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이제는 가족이 되어버린 이 분들이 CCM Power의 원동력 아닐까 싶습니다.

참, 얼마 전에는 CCM Power 가족들과 함께 CBS에서 배급한 영화 ‘레터스 투 갓’을 관람하였는데요. 각자 티켓을 구입하여 CBS의 문화 사업에 동참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CBS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내 영혼의 비타민 CCM Power!!

이 멘트는 CCM Power 오프

닝에서 제가 늘 하는 멘트인데요...

저는 CCM Power가 청취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위로가 되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방송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 이루어지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는데도 좋지만, 그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영혼의 비타민 같은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생방송을 고집합니다.

사실 청취자들께서는 아주 작은 것들에 감동하시는데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드릴 때, 혹은 사연이나 신청곡을 읽어드릴 때,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든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늘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드리는 거, 그거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8시 JOY4U스튜디오에 앉아서 청취자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시간, 애청자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CCM Power의 진디 안성진이었습니다.

Good Night in Jesus!!



CCM파워 100일 방송 기념 사진.

“쪽방촌에 봄, 봄, 봄이 왔어요”

CBS 선교봉사단, 영등포역 쪽방촌 도배봉사 활동 펼쳐

CBS 선교봉사단은 2월 24일 (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등포역 앞의 쪽방촌 도배봉사활동을 펼쳤다.

이곳에서는 영등포 광야교회가 매일 점심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이곳에서 급식봉사를 한 적이 있는 선교봉사단원들이 이번에는 주변 쪽방촌 도배와 집안 청소를 한 것이다.

몇 년씩 도배를 하지 않아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피고, 한쪽에서는 도배지가 썩어 가고 있었다. 기존의 도배지를 말끔히 뜯어내고, 초배지와 밝은색의 도배지를 각을 맞춰 붙이고 나니 한결 깨끗하고 화사한 방으로 변신하였다.

28명이 4개조로 나뉘어 손



발을 맞췄다. 할머니들이 사는 방은 구석구석 모아두신 물건들이 많아 꺼내고 다시 넣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애초 CBS 교통통신원으로 출발한 선교봉사단은 현재 40여명의 단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격월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단원들 대부분이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관계로 주로 차량을 이용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게 야외나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2월에는 급식봉사와 도배봉사를 하고 있다.

선교봉사단 신청: 02-2650-7095



기독교문화 확산 위해 협력 CBS와 국민일보, 양해각서 체결

CBS와 국민일보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기독교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CBS 한용길 사장과 국민일보 최삼규 사장은 지난 1월 2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독교영화 수입과 배급,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프로젝트 기획 등을 공동사업으로 펼쳐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앞으로 기독교영화 수입과 배급·유통·홍보에 대한 공동의 협력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각 사에서 생산하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홍보와 유통을 위해 모바일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2016년 종교개혁 500주년과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 남북평화통일 등 기독교계와 사회가 당면한 주제로 포럼과 캠페인을 공동 개최하는 것도 계획할 예정이다.

CBS 한용길 사장은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언론기관이자 선교기관인 국민일보와 협력하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라며, “양사의 협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최삼규 사장은 “CBS와 국민일보의 협력은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신문과 방송이 매체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회사가 잘 융합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관 등과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크리스천이라면 가슴 벅찬 생생한 감동을 느끼게 될 종교개혁지 순례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독일관

광청, 참좋은여행 등과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은 한국교회와 CBS에게 그리고 퇴행을 거듭하는 한국사회에도 회개와 갱신의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제2의 영적 대각성운동으로 승화’

CBS 종교개혁 500주년 기획단 출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공회 대문에 면죄부를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촉발되었다.

이후 스위스의 츠빙글리, 프랑스의 칼뱅으로 연결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며 힘을 얻는데, 이는 중세 유럽의 암흑을 깨는 실로 놀라운 사건이었다.

정교일치의 당시 상황에서 종교개혁은 사회변혁 운동의 성격을 띠며 르네상스와 맞물

린 문예부흥, 원전회복운동이 되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다. 전세계 기독교는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 정신을 기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종교개혁 직전의 암흑기와 같은 상황을 맞고 있는 한국교회에서도 회개와 갱신을 기대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CBS도 올해 1월 종교개혁 500주년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를 계기로 제2의 영적

대각성운동, 도덕재무장운동에 버금가는 정신개혁운동으로 승화되도록 한국교회와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그것이 CBS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이다.

먼저 CBS는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교회갱신과 사회개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개혁정신을 기리는 세미나 포럼도 각 교단 등과 협력하여 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CBS 이사회에 참여하는 11개 교단, 기독교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여행

크루즈, 일본 순교지 순례



- 기간 : 2016년 5월 24일(화) ~ 5월 27일(금) / 3박4일
- 코스 : 부산 → 나가사키 → 사세보 → 부산
- 2016년 리모델링 된 7만 6천톤 크루즈선(승선인원 : 3천명)
- 판매현황 : 조기 매진 임박
- 문의전화 : 1644-5469

CBS본사

CBS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CBS소년소녀합창단, 매년 2월 새로운 신입단원 모집

CBS소년소녀합창단이 2월 13일 오후 5시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제9회 정기연주회를 선보였다.

9세부터 16세까지 약 6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CBS소년소녀합창단은 1994년 창단 이래 국내외 공연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각국 정상들의 방한기념 '청와대 국민만찬' 등을 통해 외교 사절 역할을 해왔고,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최고의 연주단체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이 되었다.

지난해에도 CBS소년소녀합창단은 109개국 주한외교단 리셉션,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기념 국민만찬은 물론 10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DC 방미에 함께 수행단으로 참여해 '한미우호의 밤' 공연을 완벽히 해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CBS소년소녀합창단은 이렇듯 바쁜 일정 중에도 3집 <보배> 앨범을 발매했다. 이들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일본 하우스텐보스 공연, 상하이 국제합창제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공연을 펼쳤다.



CBS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2월 새로운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파할 성실하고 적극적인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5회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

사람의 음색을 닮은 악기, 색소폰! 색소폰 애호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가운데 동호인들의 찬양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가 2016년에도 진행된다.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는 색소폰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이면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여타의 대회들과 달리 가스펠 곡 연주로 실력을 겨루게 된다. 솔로부터 합주, 단체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본선에 오른 10팀의 경연이 수준 높은 스테이지로 꾸며져 아마추어대회답지 않은 실력과 무대를 뽐냈다. 색소폰 연주와 걸맞는 여러 악기, 소리, 춤과 마임이 곁들여져 마치 한 편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 진행되는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는 색소폰연주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색소폰을 통한 배움과 나눔, 힐링과 회복의 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강원CBS

소년소녀합창단 서울 견학

CBS 본사, 양화진 선교사 묘원 등



강원CBS(본부장 나이영)의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춘천)은 2016년 신입단원을 맞아 한해를 준비하고 계획된 모든 일정과 공연들이 온전히 하나씩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리로 지난 2월 26일 서울 견학의 길에 올랐다.

참여인원은 100명(단원 76명/자부, 자모 24명)이며, 차량을 3대로 나누어 목동CBS 본사를 견학하며, 라디오 생방송 진행모습과 TV녹화방송 무대견학, 방송 송출 시스템 내용 설명 등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

이어 국회의원회관 헌정기념관 방문 및 양화진 선교사 묘원 견학은 5개조로 새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들은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학부모와 단원들 간에도 더욱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양화진 선교사 묘원 견학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기독교복음의 뿌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성장하는데 토대를 만들고 정착하는 계기가 된 것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이들은 다음날 뒤풀이로 CBS 시네마에서 기독교영화 <레터스 투 갓> 단체 영화관람도 하였다.

특히 이번 강원CBS합창단 단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단체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가족영화의 잔잔한 감동과 감사,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대구CBS

기독교 문화발전에 기여

창립 57주년 기념 공연, 포크콘서트 개최

매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서 온 대구CBS(본부장 김창수)는 올 봄에도 창립 57주년 기념 공연으로 포크콘서트를 마련한다.

4월 23일(토) 오후 6시30분 대구수성아트피아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동물원, 여행스케치, 그리고 노사연이 출연해 그들의 히트곡을 부르며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추억의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방영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는 복고열풍에 힘입어 추억의 포크 콘서트 또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또 6월 2일에는 안동중계소



개국 2주년 기념 CCM콘서트로 'JOY4U 콘서트'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고 CBS안동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 등 이제 안동은 경북 발전의 중심이 되었다.

대구CBS는 이미 2년 전에 안동 중계소를 설립함으로써 안동과 경북 북부지역에서 깨

끗한 음질로 방송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CCM콘서트를 열어 기독교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조이포유 진행자들이 출연해 자신들의 찬양을 들려줄 뿐 아니라 점점 더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JOY4U 채널 홍보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포항CBS

'JOY4U CCM콘서트' 성황



포항CBS(본부장 권대희) 창립 16주년 기념 CCM콘서트 'JOY4U 콘서트'가 2월 23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 'JOY4U' 진행자들이 출연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목회자와 교계 관계자, 성도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CCM가

수 송정미와 최인혁, 한웅재, 심삼중, 안성진, 이삼열 밴드 등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콘서트는 CBS가 24시간 찬양음악 방송 전문 모바일 채널로 개국한 JOY4U를 지역 교계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여서 더욱 주목받았다.

부산CBS

‘익산할랄식품단지 설립 저지’ 앞장

부산CBS(본부장 문영기)는 지난 2월 25일 이슬람 대책 범국민운동본부와 부산 교계가 익산할랄식품단지 설립 저지를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 부산 발대식’을 갖고 이 사업이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설교를 맡은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최홍준 목사는 “동성애와 이슬람은 한국교회의 절대적인 적이다”라며 “책



임감을 갖고 천만명 서명운동을 반드시 해내자”고 부산 교계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노력을 종용했다.

부산 교계 지도자들과 300여명의 교인들이 모인 이번

발대식에서는 이슬람대책 범국민운동 위원장 최수일 목사가 할랄식품 단지 저지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와 이슬람 세력 저지를 위해 기도했다.

청주CBS

박현호·장나래 기자, ‘한국기자상’ 등 수상

‘제1회 전국권사합창단 합창제’ 개최

청주CBS(본부장 광영식)가 지난해 11월 10일 청주서남교회에서 ‘제1회 CBS 전국권사합창단 합창제’를 개최했다.

청주CBS 권사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이번 합창제에는 광주CBS, 경남CBS, 전북CBS, 대전CBS, 청주CBS 등 5개 권사합창단과 청주장로성가단이 은혜로운 성가를 불러 갈채를 받았다.



박현호·장나래 기자
한국기자상 등 6개 상 수상

청주CBS 박현호·장나래



기자가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산업재해 은폐의혹’연속보도로 제47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두 기자는 또 ‘제300회 이달의기자상’, ‘엠네스티 언론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상’, ‘충북기자협회 이달의기자상’, ‘충북언론인클럽 언론상’등 모두 6개 상을 받았다.

박현호·장나래 기자는 지난해 7월 청주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억울하게 숨진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이 구급차를 돌려보내며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한 사실을 추적, 단독 보도해 산업재해 관련 은폐비리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CBS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제주CBS(본부장 양경주)는 창립15주년을 맞아 3월15일 오후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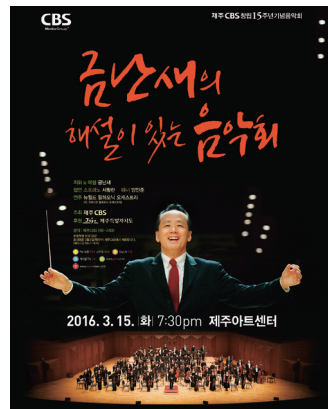
관객들이 클래식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해설을 곁들이는 것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씨가 올해도 제주무대에 섰다.

이번 음악회에는 깊이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무대를 찾아 연평균 130회의 연주를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한 뉴월드 필하

모닉 오케스트라가 참여했다. 또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서활란, 테너 양익준이 모차르트, 구노,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주며 마에스트로 금난새씨의 재미있고 쉬운 해설로 관객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작곡가 비탈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중 ‘겨울’과 독일의 로맨틱 오페라의 창시자라 불리는 베버의 ‘클라리넷 콘체르티노’등을 선보였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제주를 방문하는 금난새씨는 “올



때마다 성원을 보내주시는 제주도민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CBS

창립55주년, ‘부부사랑음악회’

‘전북지역 작은영화관’과 업무협약서 체결

전북CBS(본부장 손정태) 창립 55주년 기획 공연 <부부사랑음악회 고맙습니다>가 2월 23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교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연은, 특히 동역자로 살아가는 목회자 부부 등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CCM 가수 김명식 송미애 부부, 사랑이야기, 주리, 배우무지크양상블 등이 무대를 장식했다. 관객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지역 작은영화관’과
업무 협약서 체결

전북CBS는 2월 24일, ‘전북지역 작은영화관’들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CBS는 문화 소외 계층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 가지 예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없는 농촌 지역에도 ‘레터스투가’등 CBS시네마 영화를 상영하게 됐다.

그동안 영화를 보고 싶어도 상영관이 없어 볼 수 없는 지역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영화 관람이 가능해진 것이다.

작은영화관 측은 이번 체결을 통해 미션 영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게 됐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전CBS

국회와 본사 견학 실시



대전CBS(본부장 지영한)는 2월 23일 방송선교 후원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국회와 본사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견학에는 대전CBS의 방송선교 활동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후원자 자녀 38명이 참여했다.

견학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 도착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본회의장의 구조와 역사, 국회의 기능 등에 대해 해설사로 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후 이들은 국회 방문자센터 헌정기념관으로 이동해 역대 국회의장과 최다선 국회의원, 부부(夫婦), 부자(父子) 국회의원 등 국회의 각종 진기록 등에 대해 공부했다.

오후에는 CBS본사로 이동해 TV프로그램 성서학당 세트장에서 프로그램 녹화 과정과 카

메라 워크 등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고 기념 촬영도 했다.

이어 음악FM 스튜디오를 방문해 한동준의 FM POPS 생방송 장면을 지켜보으며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표준FM 스튜디오도 둘러봤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석한 박수완(대전 둔원초 4학년)군은 “TV를 통해서만 보던 국회 본회의장을 실제로 볼 수 있어 좋았고 라디오와 TV에서 듣고 보던 사람들을 직접 보게 돼 신기했다”고 말했다.

대전CBS 지영한 본부장은 “방송선교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이번 견학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